# 2015 축산물 유통 분석!
# 유통 비용률 2년 연속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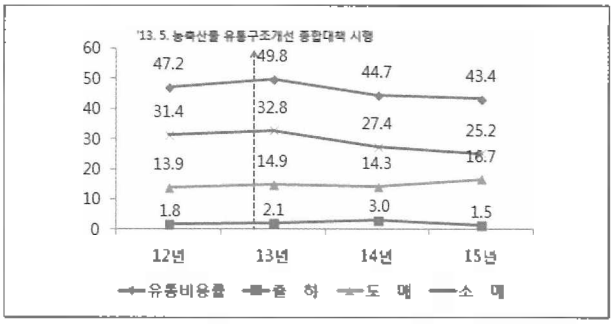
2015년 주요 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) 유통 비용률 조사 결과, 전년 대비 1.3%P가 줄어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17개 시·도에서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 등 축산물의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. 유통단계 경로별 비용 및 비율, 거래 형태, 유통 가격 등 유통 실태 전반을 조사 범위로 했으며 축산업 유통 종사업체* 중 현장 조사 2,466건을 실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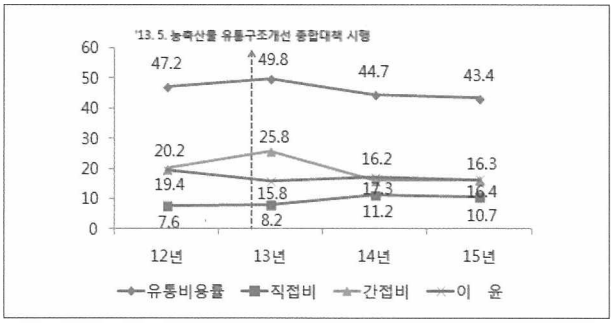
* 식육포장처리업체, 도축업체, 도매시장·공판장, 식육판매업체, 가축거래상인, 식용란수집판매업체, 계열화업체, 산란계 농장, 운송업체, 전통시장 등

조사 결과, 2015년 상반기 축산물 유통 규모는 16조 2,140억 원으로 전년 15조 2,836억 원 보다 6.1% 증가했다.

또한,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2015년 7월 기준 유통 비용률은 전년 동월 44.7% 대비 1.3%P가 준 43.4%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. 유통 비용은 최종 가격에서 농가 수취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접비(수송비, 포장비, 상하차비 등), 간접비(임대료, 인건비, 이자 등), 유통 이윤으로 구성되며 앞선 조사에서는 2013년 49.8%, 2014년 44.7%를 기록했다.




〈유통단계별(단위 : %)〉




〈유통비용별(단위 : %)〉

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유통 비용 구성 요소 중 직접비와 이윤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.5%P, 0.9%P 감소했고, 간접비는 0.1%P 증가했다. 유통 단계별 구분에서는 출하단계와 소매단계는 각각 1.5%P, 2.2%P 감소한 데 비해 도매 단계는 2.4%P 증가했다. 농가 수취 가격 비중은 55.3%에서 56.6%로 1.3%P 증가해 7,253억 원의 농가 소득 증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농가수취가격 증가 총액 (7,253억 원) | = | [(2015년 상반기 유통규모) 16조 2,140억 원×(2015년 농가수취율) 56.6%] − [(2014년 상반기 유통규모) 15조 2,836억 원×(2014년 농가수취율) 55.3%]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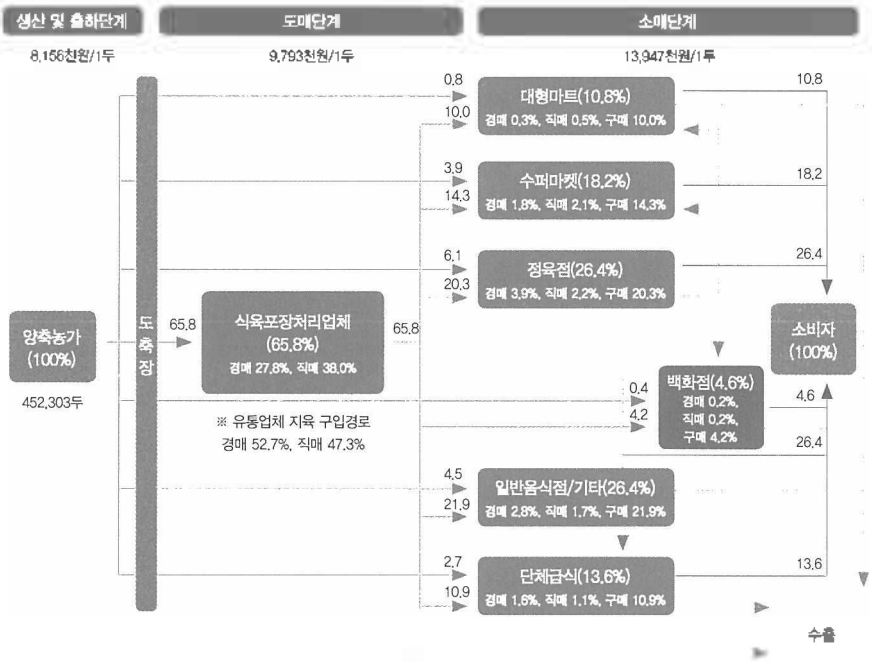
* 유통규모는 축종별 소비자가격과 거래물량을 곱하여 산출(전년 대비 6.1% 증가)

품목별로 살펴보면, 쇠고기는 41.5%로 41.8%였던 지난해에 비해 0.3%P 감소했고, 돼지고기는 45.6%에서 42.0%로 3.6%P, 계란은 47.6%에서 46.7%로 0.9%P 줄었다. 조사대상 중에서는 닭고기만 유일하게 48.7%에서 50.2%로 1.5%P 소폭 상승했다. 이와 같은 유통 비용률은 2014년 미국이 쇠고기 44.8%, 돼지고기 67.2%(USDA 통계 기준)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동기 기준 쇠고기가 3.0%P, 돼지고기는 21.6%P나 적은 수치다.

* 쇠고기 : 한우거세 1+등급 1두 기준, 돼지고기 : 한돈 1등급 1두 기준, 계란 : 일반 특란 30개 기준, 닭고기 : 통닭 11호 1수 기준

품목별 변화 배경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, 쇠고기는 2015년 상반기 한우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.0%P 증가했으나 거세우 도축 물량 증가와 수요증가로 도매가격이 전년 19.3% 오른 것이 변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된다. 아울러 출하와 도매 단계 비용은 각각 0.8%P, 1.5P 증가했으나 소매 단계는 2.6%P 감소했고, 간접비와 이윤은 각각 2.4%P, 0.4%P 감소하고 직접비는 2.5%P 증가하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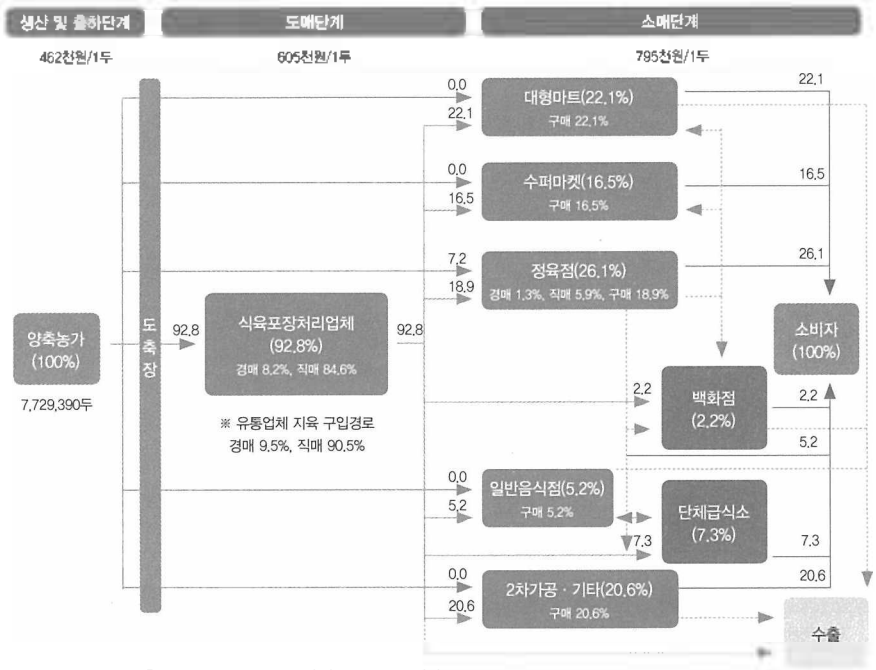
〈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〉




주1) 우시장 큰 소 거래, 가축거래상인 중개, 도축제경비 등 물류에 해당하는 경로는 생략
주2) 도축형태에 따른 경매와 직매 구분 : 2015년 1~6월 쇠고기 전체물량 기준
주3)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소매단계 업태별 비율 : 쇠고기 전체 물량의 64.9% 적용
주4) 유통단계별 가격은 해당 유통단계의 경로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값
자료 : 축산물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정보, 2015년 1~6월 축산물 유통실태조사

돼지고기의 경우에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모돈 감축 효과와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으로 비육돈 출하량이 1.1%, 상반기 경매 두수는 11.4% 감소했고, 도매가격은 13.1%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 또한, 유통 단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출하와 소매 단계의 유통 비용이 각각 3.4%P, 3.8%P 감소하고, 도매 단계는 3.6%P 증가했다. 간접비와 이윤이 각각 1.3%P, 0.4%P 증가하고 직접비는 5.3%P 감소한 것도 유통 비용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〈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〉




주1) 우시장 큰 소 거래, 가축거래상인 중개, 도축제경비 등 물류에 해당하는 경로는 생략
주2) 도축형태에 따른 경매와 직매 구분 : 2015년 1~6월 쇠고기 전체물량 기준
주3)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소매단계 업태별 비율 : 쇠고기 전체 물량의 64.9% 적용
주4) 유통단계별 가격은 해당 유통단계의 경로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값
자료 : 축산물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정보, 2015년 1~6월 축산물 유통실태조사

계란은 유통 비용률 감소에는 2015년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했으나 1인당 소비량이 3.1%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. 이와 더불어 출하와 도매 단계의 비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.5%P, 6.5%P 감소했지만 소매 단계는 7.1%P 증가했고, 직접비와 이윤은 1.5%P, 4.9%P 감소한 반면 간접비는 5.5%P 증가한 것도 변화의 원인이 됐다.

다만, 조사 대상 축산물 중 닭고기는 AI 발생으로 인한 미국산 수입 제한 등을 감안한 병아리 추가 입식으로 상반기 육계 생산량이 7.3% 증가한 점 등에 의한 영향으로 유통비용률이 50.2%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1.5%P 소폭 상승했다.

농식품부는 "축산물의 경우 도축과 생축→지육→부분육→정육에 이르는 부위별 정형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수준 유통비용율 발생은 불가피하다."고 설명하는 한편, "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의 규모화, 신유통경로 발굴 및 유통경로 간 경쟁 등 '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'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특히, 농식품부는 2015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품목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소는 생산-도축-가공-판매 일관체계를 갖춘 축산물 패커를 더욱 내실화하여 전속(계약) 출하 비중을 늘리고 부분육 유통거래 활성화 할 계획이다. 돼지는 계열화 기반을 갖춘 축산물 패커를 집중 육성하고 산지 돼지 가격을 등급별 정산방식(도체중 기준)으로 개선하고, 닭은 가금산물 가격 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닭고기 산지-소비지간 가격 정보 제공 강화할 방침이다. 계란은 계란집하장(GP)의 기능을 강화하고, 안심계란 등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산란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. 득템정보

****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은 축산유통종합정보 홈페이지(www.ekapepia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**